

곽승영



미 하워드대 경제학 교수  
前 미 재무부 해외경제정책국 부국장

# 오르막이 늘 오르막으로 인도하진 않는다

21세기 세계는 경제·정치·사회 모든 면에서 글로벌화가 진행 중이고 이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글로벌화의 이익은 얻으면서 거기 따르는 소득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이다.

한국은 '인적 자본 투자를 통한 고성장 지지' 전략으로 비숙련노동자의 지식과 숙련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것이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다. 이는 글로벌화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계층 자녀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글로벌화의 수혜자가 되도록 돕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득분배의 악화 방지를 위한 반 글로벌화 정책이나 보호주의보다 현명한 정책이다. 반 글로벌화 정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TMD 세계경쟁력 연감 2008'에 의하면 한국 노동자의 숙련도는 55개국 가운데 43위다. 고등교육 수료자 비율은 4위인 반면 대학교육의 수준은 53위였다. 교육제도 역시 39위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적으로 우수하나 질적으로 열등하다는 평가다. 이에 비해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은 노동의 숙련도 및 교육의 질에서 상위권에 있다. 한국의 교육은 개혁되어야 하며 정부정책은 교육의 질적 수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은 교육수준과 인적 자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이 21세기를 위해서 젊은 세대의 준비를 미루거나 소홀히 한다면 미래 한국은 자신감과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적 자본은 생산적인 능력으로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손과 가슴 속에 있다. 정부는 국민의 역량과 창의력 제고에 필요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국의 미래가 밝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역사는 오르막이 항상 더 높은 오르막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과거가 미래를 묻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국민 모두, 특히 사회 지도자들이 자기도취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노력하며 살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감탄하고 돈을 존경하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정직, 관대함, 지식에 감동하게 되어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 뭐든 '빨리 빨리' 하려는 성격이다. 그건 단순한 사회에선 유익할 수 있으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높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늘 최고, 최 초라는 말에 연연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다",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식의 자랑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정말 최고인 사람은 떠돌고 다니지 않아도 세계인 모두가 그 사람이 최고인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수준을 과대평가하면 버블이 형성되고 이 버블은 지식의 축적을 막으며 결국에 가서는 터지고 만다.

한국이 미래의 성공을 보증 받고, 선진 한국의 빛을 밝히는 결정적인 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마음 가짐에서 나온다. 굶주림 속에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음(beautiful mind),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원동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끝]